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진지>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권진지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10호
서기 2001년 3월 14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자신을 믿고 물러서지 않는 공부

세계도 봄은 오겠지요

문 의문도 주인공에서 나왔으니 주인공에서 풀어야지 하면서 새기고 새기다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도 알기 쉽게 법상을 차려주셨는데 먹지 못하였으니 죄송합니다. 겨울 나무는 봄이 왔건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봄이 오지를 않았습니니다.

지금도 며칠에 한번씩은 본래 모습이 보고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니다. 기어코 알아보고 마음을 먹자 장좌불와라는 생각이 떠올라 며칠을 시도해 보았습니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이었는데 제 주위가 환해지면서 앞면에서는 색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니까?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보다는, 그것을 지켜보기보다는 빨리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습니니다. 두세 번을 시도한 결과 겨우 눈을 뜨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니다. 지켜봐야 했는데 두려움 때문인지 외 그랬는지, 뿌리가 흔들리지 못했기 때문인가 하고 자책하고만 있습니니다.

어제는 불교TV에서 어느 큰스님께서 '만법귀일, 비심비불, 청산유수'라는 선시를 낭송하시는 것을 듣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입니니다. '진정코 관하면 자성을 보리라' 하셨는데 꿈이었습니다. 멍하니 이것이 환상인가 했습니니다. 스님, 세계도 봄은 오겠지요?

답 누구나 다 내면에 귀신 방귀씨가 있어요. 그 귀신 방귀씨가 몸을 움직 거리게 하는데, 그 방귀씨를 찾아야 싱그러워 지는 겁니다. 찰나찰나 공치기를 하려면 내면의 귀신 방귀씨를 찾아야 되겠지요. 자기의 귀신 방귀씨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본래 모습이 보고싶어 견딜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생각마저 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사랑적이지 않아요. 보는 자리가 아닙니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끄달리지 말고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더 열심히 놓고 관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주고 말고 말고 지켜보다 보면 자연히 마음에 봄이 올 것입니니다. 월할 자유인의 삶을 사세요.

알일 걱정이 많습니니다

문 저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 되는 것이 많습니니다. 진실 되게 마음이 나지도 않고 사랑적이지 않아요. 자꾸 울라웁니니다. 자신의 삶을 노력해서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막상 현실에 직면하면 놓치는 수가 많습니니다. 우스꽝스런 생각도 녹음이 틀듯 자주 나오고 합니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요?

답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인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급하니까 무조건 걸려야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니다. 그런데 두말할 것도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겁니니다'

언젠가도 얘기를 했듯이, 권투하는 사람이 권투를 아주 잘한다면 누가 온대도 걱정이 안 되죠? 만약에 서투르다면 걱정이 되고 운동 떨리고 부자연스럽고 무겁지만,

그게 설이지 않았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의식들은 잔잔하게 그냥 돌아가죠. 그 마음하고 다 통하니까요. 그러니 사는 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되지 어찌 안 되겠습니니까? 그런데 걱정이 돼도 바깥으로 그것을 다 풍기고 온통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익은 사람들은 안으로 놓으면서 '이 걱정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걸으로는 육신이 부지런히, 걱정 없이 뛰면 걱정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듯 저렇듯 무조건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물러서지 마시고 믿고 맡기세요. 옹공로에다 무쇠든 잡쇠든 모두 갖다가 풀어 놓으면 다시 새 쇠로 생산이 되어서 나오듯이 그런 작업을 지극하게 하라는 겁니니다.

그렇게 꾸준한 마음으로 근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일을 여윌하게 해 나가신다

다. 그런데 그 몸 속의 중생들은 잘되고 잘못 되고를 모릅니니다. 그리고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지은 그 인연에 의해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입력이 되었다가 하나하나 나옵니다. 현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강도질을 하기도 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욕도 하게 하며, 병이 오게도 하니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 하리까? 다가오는 그 모든 고통을 말씀입니니다.

그러면 닥쳐오는 그 모든 고통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는가? 표현하자면 옹공로에 넣기만 하면 녹아버린다고 하고 불바퀴에 넣기만 해도 타버린다고 했습니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없이 일어나는 생각에 왜 일일이 신경을 쓸니까? 그저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라는 불바퀴에 놓아야 합니다.

'일체를 놓는다' '말려 놓는다'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코드 스위치를 올리는

매사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오직 근본에 모든 것을 놓아 내가 없는 자유인으로 살라

면 모든 일이 근본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실타래 풀리듯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겁니니다. 그러니 오직 근본에 모든 것을 놓는 것 밖에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사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놓아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없는 자유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주인공 공부 어떻게 하는지요

문 저는 마음 법을 접한 지 꽤 됐습니니다. 그러나 아직 기본 가르침부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니다. 주인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니다. 놓는다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믿음에 대해 말씀 하시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니다. 저를 이해 하실런지요. 그리고 행을 말씀하시는데, 몸이 움직여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는데, 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통 모르겠습니니다. 내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을 유일한 행이라고 생각합니니다. 그 외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니다. 또 마음은 빠르는데, 그것을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니다.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각자 여러분의 뿌리입니니다.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뿌리가 지나나 있으면 에너지를 모두 공급합니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니다. 인간의 뿌리를 인간이 보지 못하고 나무의 뿌리를 나무가 보지 못합니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레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나무 뿌리와 나무를 살펴볼 수 있겠지마는 자기 뿌리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몸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만 받는 것일 뿐 자기가 나오기 이전 영혼과 그 나오기 이전의 악업, 선업을 지은 인연들은 전부 내 몸 속에 들어 있습니

역할과 같습니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오로지 그 옹공로에 맡겨 놓으시란 말입니니다. 맡겨 놓기 되면 마음의 코드 스위치가 울려져 자가발전소의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공급되게 되는 것이니, 생활이 곤궁한 사람은 생활이 윤택하여지게 되고,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이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발버둥을 치고 애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니다. 일체 모든 것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하게끔 일임하라는 겁니니다. 나는 없어요, 공(空)했던 말입니니다. 모두가 부처님께서도 '모두가 공해서 내세를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답답하다,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답답한 것은 그 자리에서 안 나온 겁니니까? 시원한 것은 그 자리에서 안 나왔습니니까? 그러나 시원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 하고 놓고, 답답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 자리에 내면되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는 모른다는 것에 모든 걸 걸고정시켜 둥니까?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오는 도리와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드는 도리를 망라히 알아야 만이 상대와 상대가 한데 합쳐져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 각기 찾을 것입니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니다. 실천입니니다. 실천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체험 속에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야! 이런 것이로구나! 일체 만법이 작으나 크나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오로지 실천해야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는 의미

문 저는 요즘 주인공 공부를 해가면서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



그림 · 최주현

말씀을 크게 집잡했습니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 길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니다. 지금 현재 의식으로는 안 좋은 일도 진정으로는 저를 위한 것임을 느꼈습니니다. 요즘들은 현재 의식으로는 열심히 생활하고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니다. 이런 가르침 주시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바다를 향해 가는 강물과 같이 언젠가는 바다에 도달하리라는 신념이 생겼습니니다. 물론 지금 해운 대로 주인공에 일임하고 주인공 너만이 너를 증명하라고 관하면 되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니다. 스님께서 부와 자가 만나게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의식이 주인공임을 확인하는 것이 부와 자가 상봉하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로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니다.

답 예전 같으면 공부할 때 '너 귀신 방귀씨 없었느냐? 없었다면 내놔봐라.' 이렇게 말로 하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살아서 이 공부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습니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니다. 자꾸 이어 갑니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 은산철벽을 정으로 쫓는 것처럼 자문자답하면서 자꾸 놓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잖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앉아서 단련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니다.

우는 애한테 먼저 젖 주게 돼 있거든요. 뱃속에 어린애가 들었을 때 태가 있고 젖줄이 있습니니다. 그 애는 자랄 때 젖줄을

잡고 자립습니니다. 여러분도 그 주장자가 바로 젖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니다. 그 젖줄을 잡지 않으면 살수가 없는 거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법을 알아야 됩니니다.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올이 없는 도리를 모릅니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입니니다. 실천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벌써 싸이 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니다. 싸이 트어서 그 싸은 나무에까지 묵신과 돌 아니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입니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돼서 조복을 받았다는 얘입니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부와 자가 상봉을 못 했다 하더라도 한 군데 몰두해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굴러 놓으세요. 법륜을 굴린다는 것도 바로 이렇게 굴리는 걸 말합니니다. 그렇게 굴러 놓을 때 잘나에 대뇌를 통해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대로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니다. 깨우쳤다 깨우치지 못했었다를 떠나서 진짜로 자기 근본자리를 믿는다면 말입니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느냐? 못났든 잘났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너만이 너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발이 있다고 했습니니다. 부모 자식간에대신 똥뉘 줄 수 없고 밥 먹어 줄 수 없고 잡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

기 주인공, 자발 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발로 인해서 수 없는 제불이 찰나찰나 엮어지니까요. 그리고 통신도 되면서 항상 들고 나시거든요. 그러니 그 자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었다를 떠나서 천연적으로 근본을 쥐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문 집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화합을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원합니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 합니니까?

답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키우고 가족이 화합해서 사는 일일 것입니니다. 요즘 이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이를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리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걸로만 듣고서 버린다면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니다.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주면서 그 자리에 맡겨져 따뜻한 감을 갖고 따뜻한 데로 고이게끔 되어 있습니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남을 원망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저것이 왜 저렇게 못했어? 누굴 닮아서 그래?' 이렇게 마음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음 낸 대로, 욕하는 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니다. 입력이 돼서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니까?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시비를 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싸우고, 조그만 거 가지고 응어리가 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온통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니, 그레, 세상을 옮겨주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가장 한 도량도 화합을 못 시켜서 이혼을 하느니 죽으니 살리니 해서야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게 하니깐 어쩔 수가 없습니니다.' 하구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놓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일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 근본을 100% 믿고 그 자리에 믿고 맡겨놓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니다. 그렇지 않고 몸을 붙잡아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남편이든 아이든 아내든, 자기 그릇 갖대에 맞을 양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가 등글게 그쪽에 모자라게 들어가 주고, 크면 큰 대로 들어가 주고 아주 작으면 아주 작은 대로 들어가 준다 면, 항상 평등하고 항상 동등지 않았습니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좀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허! 저 모습이 바로 내가 모르고 살 대의 내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 해보셨습니니까? 나 모자랐을 때에 바로 그 모습으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겁니니다. 자기이기 때문이죠. 전자에 모자랐던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그릇으로 생각을 하고선 '이휴, 저거는 안되지. 모든 게 모자라.' 하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모가 나죠. 그러고 외면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할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요즘 들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디서 직장을 잃고 담배를 피우면서 괴로워하는 걸 보면 하도 가엾어서 말입니니다.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안목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1 288쪽
값 6,000원
에세이북